

지역 매아리

부안변산자연휴양림, 17일 내소사서 산행문화 캠페인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소(소장 정영덕)는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건전한 산행문화 캠페인을 오는 17일 부안군 변산면 내소사에서 추진한다.

건전한 산행문화 캠페인은 등산객 및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불법산림훼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개선을 통해 자발적인 숲 사랑 활동을 유도하는 등 동시 산행예방 활동도 병행하여 추진될 예정이다.

"100대 명산 클린(clean)" 캠페인은 산림청 개청 50주년을 맞아 산의 가치와 소중함을 고취하려고 등산객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지정등산로 이용, 흔적 남기지 않기, 산행안전수칙 등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을 유도할 예정이다.

변산자연휴양림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소중한 산림자원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많음을 인지하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산림을 지키는 건전한 산행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농어촌공 박종만 전북지역본부장 부안지사 방문 직원 격려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박종만 한국 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장이 10일 부안지사(지사장 조남출)를 방문해 현안 사항 등을 점검하고, 고마제 테마공원사업 현장을 찾아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박종만 본부장은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 되는 시기에 걱정없이 농사 지을 수 있게 농업용수 확보와 안전영농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조남출 지사장은 "깨끗한 수질 관리와 철저한 시설물 관리를 통해 최상의 물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안=이옥수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정읍시는 10일 시기동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 준공식을 가졌다.

시기동 주민자치센터 준공

양질의 서비스 제공 · 복합문화공간 '기대'

시기동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가 완공됐다.

이에 따라 시는 10일 김용만 시장 권한대행과 정읍시의회 유진섭 의장을 비롯한 의원, 지역 사회기관단체와 주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가졌다.

새로 완공된 청사는 시기동 201-1번지 일대 옛 보건소가 철거된 자리에 들어섰다. 총사업비 24억3,000만원이 투입됐고, 연면적 약 995㎡이다.

청사는 지난해 6월 착공, 올해 4월까지 11개월의 공사 끝에 준공됐다. 1층에는 민원실과 회의실, 문서고가 들어섰다. 또 주민센터 기능을 하는 2층에는 체력단련실과 프로그램실이,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담당하는 3층에는 다목적 강당이 조성됐다.

시는 청사 준공으로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를 통합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관련해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는 요가와 에어로빅, 탁구가 운영되고 있다.

6월부터는 체력단련실도 본격 운영할 계획으로, 이달 중 운동기구 구입을 마칠 예정이다.

김 시장 권한대행은 "신청사가 준공된 만큼 보다 쾌적하고 산뜻한 공간에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론 주민자치 공간으로서의 기능도 강화해 지역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공동체의 거점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산관계 농가 환경개선 축사시설 지원

고창군, 융자 80% 자부담 20%

산관계 축사면적 16,000㎡ 이하 농가

고창군이 위생 · 안전성이 확보된 계란 생산을 위한 '산관계 환경개선 축사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산관계 환경개선 축사시설 지원사업은 축사 내부의 살충제 성분을 제거해 기적질병 최소화, 농가 생산성 향

상과 안전한 계란 공급을 위한 사업이다.

집란벨트, 계분벨트, 급이시설, 급수시설, 케이지 등 시설 · 장비 등을 교체하거나 설치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을 바라는 농가 · 법인은 신청서, 축산업등록증, 건축물대장, 토지이용

계획확인원, 신용조사서, 축산관련 교육시설 및 인증서 등을 첨부하여 읍면사무소에 수시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조건은 융자 80%(연리 1%, 5년 거치 10년 상환) 자부담 20%이며 산관계 축사면적이 16,000㎡ 이하인 농가에 한해 지원을 한다.

군 관계자는 "사업신청은 수시로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므로 지원이 필요한 농가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이학수 정읍시장 예비후보 "허위사실 유포 중단되길"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장 당내 경선에 1위를 차지한 이학수 예비후보의 후보 확정안 의결을 앞두고 두 차례에 걸친 재심이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에서 모두 기각됐다.

지난 5일, 당내 경선 결과 발표 이후 김석철 예비후보 측에서 신청한 재심

신청이 8일, 한 차례 기각됐지만, 9일 개최된 제219차 최고위원회에서 '김석철의 재심신청의 건'을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로 회부하였고, 10일 오전 재의됐지만 또 다시 기각됐다.

이 예비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불어난 문제에 대한 의혹이 해소됐으니



이제 금권선거라는 허위사실 유포가 중단되길 바란다"며, "다시 한 번 당내 경선에 참여했던 모든 후보들에게 화합의 손을 내밀고 우리 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힘껏 뛰겠다"는 소회를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더 부안다운 부안' 을 만들겠다"

김종규 부안군수 예비후보



이 너무 짧았다"고 강조했다.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김종규 전북 부안군수가 10일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무소속으로 재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날 김종규 군수는 부안선거관리위원회에 부안군수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 부안수협 2층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본격 선거 행보에 나섰다.

김종규 군수는 "이제 더 삶이 여유롭고 공부하기 좋으며 '내 고향이 제일이다' 자랑할 수 있는 '더 부안다운 부안' 을 만들어 보고자 다시 한 번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민선 6기 동안 추진한 사업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획하고 준비한 것들로 변화의 그림을 완성하기에는 4년이라는 기간

그리고 마지막 소득형 관광에 역점을 두고 군민이 잘사는 부안 건설에 온 정성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군수는 한 번 더 일할 수 있도록 재신임을 준다면 추진 중인 일을 마무리하고 완료된 일을 완성도를 더 높여 가겠다고 약속을 잘 지키는 여러분의 단골 택시 김종규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셔드리고 즐거운 인생길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안=이옥수 기자



여행블로거 초청 고창농촌관광 홍보 팸투어

고창군이 전국 유명 여행 블로거들을 초청하여 농촌관광을 홍보하기 위한 팸투어 행사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팸투어는 오는 8월 '팜파시골버스'의 본격적인 개통을 앞두고 여행전문 블로거들을 초청해 모니터링과 인터넷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팜파시골버스는 정읍역을 출발해 고창시의버스터미널을 경유한 뒤 고창의 우수 관광지와 팜팜농가를 방문하는 테마형 시티투어버스로 오는 8월 4일부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진행하게 된다. 파릇파릇 청보리가 싱그러운 5월 봄날에 맞춰 고창을 찾은 30여명의 여행 블로거들은 고창의 아

름다운 풍경과 구석구석 농촌관광의 즐거움을 만끽하며 고창의 새로운 모습을 알게 된 뜻깊은 여행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독자적 운영체제를 하나로 모아 관광 네트워크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팜팜스테이션 사업에 참여중인 먹거리 · 볼거리 · 즐길거리 · 살거리가득한 팜팜농가를 방문해 타 지역과 차별화된 농촌관광시스템 운영에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소감을 전했다.

이번 팸투어에 참여한 블로거들은 지역의 명소와 축제는 물론 팜팜농가 방문후기를 개인블로그에 게재함으로써 고창 농촌관광 홍보대사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Advertisement for 'Jin'an Gogwon' (진안고원) featuring 'Hongsamju' (홍삼주) medicinal wine. The ad includes a bowl of food, ginseng roots, and bottles of the wine. Text includes '대한민국 홍삼 특구 진안고원' and '세계주류품평회 금상'.